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87-396
<https://doi.org/10.29212/mh.2018..109.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모택동 시대의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중화주의적 해석

Celestial Empire's view about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of Mao era

- 선즈화(沈志華)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2017) -

이동원*

1. ‘중조관계’는 “혈맹”이라는 신화에 대한 비판

선즈화(沈志華)는 그의 최신작,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2017)를 통해 모택동과 김일성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이 서평은 Book Not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31, Number 1,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June 2018, pp.129~135에 게재된 필자의 영문 서평을 일부 수정하고 번역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1945년부터 1976년까지 ‘중조관계’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성격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공유해 온 중조관계에 대한 오래된 신화, 즉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조관계를 “혈맹”이나 “순망치한(唇亡齒寒)”, “동고동락(同苦同樂)”과 같이 아름답고 영원불변한 “우의(友誼)”로 인식하는 신화를 비판하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즈화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조 공산당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서장을 전사(前史)로 쓰고, 1945년부터 1976년까지의 시기를 6개 장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서장에서는 항일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양국 공산당의 관계가 “반파시스트동맹 국가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도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연안파”는 국제 통일전선의 동반자로서 중공과의 관계가 밀접했지만,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격대파”는 소련의 통제를 받으면서 중공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이다.

제1장 “약즉약리(若即若離)”(1945~1949)에서는 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던 시기를 정리하면서 ‘중조’는 서로 지원을 주고 받으면서도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아시아혁명을 영도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소련 극동 안전의 관문인 조선만은 예외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조관계의 역사는 큰 틀에서 중소조 삼국관계의 역사라고 할 만큼 소련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제2장 “조선전쟁”(1949~1953)에서는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 출병으로 객관적으로 조선반도에 관한 발언권과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국 지도부가 자주 충돌하고 갈등했음을 보여준다. 중조 간의 분쟁은 결국 모스크바의 최종 결정

에 따라 해결되었고, 스탈린은 양 지도자 가운데 예외없이 모택동을 지지했기 때문에 강렬한 민족독립 의식을 갖고 있던 김일성에게 이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중조관계의 진정한 우의는 결코 다져지지 않았다.

제3장 “주체의 제창”(1953~1956)에서는 정전 이후 김일성이 전후 복구와 반대파 제거에 성공했고, 주체사상을 내세웠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중국과 소련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택동은 조선의 전후복구 과정에서 ‘천조(天朝)’ 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원조를 했지만, 중소 내정간섭 이후 김일성은 중국보다는 소련에 더 가까워졌다.

제4장 “회유정책”(1956~1960)에서는 1956년 10월 발생한 폴란드, 헝가리 사건 이후 모택동이 김일성을 회유하기 위해 1957년 말 내정간섭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철군을 주동적으로 결정했음을 설명한다. 모택동은 연안파로 김일성을 대체할 생각이 없었지만 수십만의 중국 군대의 주둔은 김일성을 불안하게 했고,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한 이후야 김일성은 비로소 조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다.

제5장 “중소분열”(1960~1966)에서는 1959년 10월 이후 중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관계 속의 외교 공간을 확대했고, 중소 등거리 외교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김일성은 국경조약 체결을 통해 백두산의 주봉(主峰)과 천지(天池) 일부를 획득했고, 모택동은 조선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며” 국경지역 조선족의 대규모 북한 이동을 용인하면서 동북지역을 “조선의 대후방(大後方)”으로 규정하고 김일성에게 이 지역의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김일성은 실용

주의 외교방침을 고수하면서 소련과 가능한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1964년 10월 브레즈네프의 등장 이후 조소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다. 중소 두 대국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조선은 여유가 있었고, 오히려 중국은 수동적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제6장 “모택동(毛澤東)”(1966~1976)에서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발발로 중조관계가 다시 악화되었으나 1969년 10월 최용건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우호관계를 유지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중미 화해 및 관계 정상화로 김일성은 모택동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모택동의 반제투쟁을 스스로 이어가고자 했다. ‘김일성주의’가 ‘모택동사상’을 대체했고, 세계혁명을 위해 주체사상이 제3세계에 수출되었다. 이때의 중조관계는 겉으로는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모택동의 사망으로 중조관계의 한 시대는 끝이 났다.

선즈화는 모택동 시대 ‘중조관계 30년’에 대한 위와 같은 방대한 저술을 통해 모택동,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세대 동안 이어져 온 중조관계가 일종의 특수한 “형제” 관계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립적, 모순적이었다고 규정한다. 모택동은 무의식 속에 “천조(天朝)”의식을 가지고 중국이 아시아혁명, 나아가 세계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선에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와 반대로 김일성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며 중조관계에서 ‘주의(主義)’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했다. 선즈화는 이 때문에 이 기간 중조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립적, 모순적이었으며, 이 점이 중조관계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2. 이 책의 미덕과 논쟁점들

이 책의 미덕은 1945년부터 1976년까지, 30년이 넘는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조 관계를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긴 시기를 다루면서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장에만 1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여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조 공산당의 역사적 연원을 전사(前史)로서 친절하게 정리한 것도 독자들이 그 이후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된다. 이종석의 선구적 연구인 『북한-중국관계 1945~2000』(중심, 2000)과 비교해도 특히 한국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국과 소련 당안을 광범위하게 섭렵했다는 점에서 북한현대사나 중국현대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이 책도 논쟁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에 대한 서술의 문제이다. 선즈화는 1941년 후보중의 추천이 항일연군 내 김일성의 지위 상승을 가능하게 하였고,(124쪽) “88여단 출신이라는 김일성의 경력은 이후 모스크바가 그를 북조선의 통치자로 낙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134쪽)라고 서술하여 김일성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중국과 소련의 외부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북한현대사 연구자들도 김일성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조선 사회 내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한다. 한홍구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민생단 사건 해결 과정에서 김일성이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명망을 얻었다고 주장했고,¹⁾ 이밖

1) Hongkoo Han, *Wounded nationalism : the Minsaengdan incident*

에도 1937년 6월 보천보 전투와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호외는 조선인들에게 김일성을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즈화는 430명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반(反)민생단 사건’으로 조선인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다고 서술했을 뿐,(88쪽) 그 사건이 살아남은 조선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보천보 전투와 같은 ‘작지만 시기적으로 의미있는’ 항일 무장투쟁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국공내전 시기 동북내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서술하면서도 북한이 2008년 출간하고, 2016년 재발간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를 인용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최근 인식이 중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상세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²⁾ 사소한 사실 관계의 오류들도 주로 이 시기 서술에서 나타난다.³⁾

둘째, 한국전쟁 관련 서술 문제이다. 선즈화는 선행 연구인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선인, 2010)을 바탕으로 이 책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 2)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는 이에 관한 다음의 책들을 열람할 수 있다.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외국문출판사, 2016);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 1,2』(조선로동당출판사 2011~2012)
- 3)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오류들은 다음과 같다. 100쪽 각주 158번, 광복군 부사령관을 맡았던 김약산의 본명은 김두봉이 아니라 김원봉이다. 158~159쪽에서 남로당과 공산당원의 대표적 인물에 홍명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이다. 홍명희는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중간과 지식인이자 역사 소설 임격정(林巨正)을 쓴 문인으로, 1947년 10월 서울에서 창당된 민주독립당 당수였다. 1948년 4월, 김구, 김규식 등과 남측 대표로 남북협상에 참석한 뒤 북에 남았다. 169쪽, 북조선노동당 창당은 1948년 8월이 아니라 1946년 8월에 이루어졌다.

의 제2장에서 한국전쟁 시기를 서술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공산주의 3각 동맹’에 의해 발발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스탈린과 김일성이 주도했고, 모택동은 ‘반대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스탈린은 극동에서 중소우호조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고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1월 ‘한국전쟁 승인’으로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고, 4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극동정책 전환 이유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 그는 “이 시기 스탈린의 조선 문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추측에 의한 것”임을 자인했다.⁴⁾

또한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서술도 논쟁적인 성격이 강하다. 주지안룽(朱建榮)의 주장대로 모택동이 “미국이 한반도와 베트남, 타이완 등 3개 경로로 중국 본토를 침투하려 한다(三路向心迂回)”고 보았다면, ‘천조(天朝)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적 공산주의자’인 모택동이 대만 문제와 조선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후자에 반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⁵⁾ 1950년 10월의 출병 전에 두 차례나 출병에 유리한 기회가 있었으나 스탈린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군사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도,(311쪽) 1950년 10월의 출병조차 중국공산당 내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모택동과 팽덕회의 적극적 설득으로 가능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4) 셴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217쪽. 셴즈화는 같은 책의 239쪽, 각주 77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스탈린의 극동정책의 전환 동기에 대한 판단은 역사적 자료들을 기초로 추론한 것이며, 현재 이러한 판단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문헌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 셴즈화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과정에서 모택동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주지안룽,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원제: 毛澤東의 朝鮮戰爭 : 中國가 鴨綠江을 渡るまで)는 인용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승인과 무관하게 중국인민지원군의 조기 출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⁶⁾ 이러한 모순들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스탈린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참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초래한 문제로 보인다.

1945년부터 1966년까지 시기를 1~5장까지 촘촘하게 서술했던 것에 비하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시기에 대한 6장의 서술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며, 특히 데탕트 시기, 중미화해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소략하다. 이는 이 시기가 저자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968년이 갖는 공산권 내부의 의미, 모택동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중국 내부의 변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외부 위협에 의한 국가 안보의 “사면초가” 상태만으로 중미화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자의 서술 전략 때문이기도 하다.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와 모택동의 중미화해 사이에는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 전반에 흐르는 ‘자국 중심적’ 해석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연구자로서 선즈화가 중국 중심적 시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떤 연구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해방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지원은 ‘위성국’ 북한이 아니라 “사실상 소련의 중공에 대한 원조였다.”고 평가절하하면서(197쪽) 한국전쟁에 대한 모택동의 지원은 “마치 자기 집안의 일처럼” 여겨 진심을 다 했다고 설명한다면,(386쪽) 이는 균형감 있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즈화는 이 책에서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고 북조선과

6) 선즈화도 선행 연구에서 1950년 8월 27일에도 “파병 문제가 아직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서술했다.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254~255쪽)

더불어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진 것”(180~181쪽)이라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소련의 위성국이었다고 서술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기 모택동의 북한 지원도 사실상 소련의 지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⁷⁾

3. 새로운 연구 지평의 확대 가능성

냉전 시기 공산권 내의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중조 관계라는 양국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특히 중국의 존재는 소련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 공산권에 대한 이해보다 아시아 공산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즈화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 각국 지도자의 심성(心性)과 무의식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천조(天朝)의식, 반(反)사대주의, 주체사상 등 다양한 ‘주의(主義)’를 30년이 넘는 방대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시켜 서술한 그의 노력은 이 시기 공산주의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제시하며, 또한 냉전 시기 자본주의 국가

7)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북한현대사 연구자들도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것이다. 김성보는 역사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20세기 한국사’ 시리즈 중 『북한의 역사 1』에서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북한 정부는 소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수립되었으나, 그렇다고 초기 북한을 단순한 위성국가로 볼 수 없다. (중략) 요컨대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는 상대적 자율성에서 절대적 자율성으로 자율성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김성보, 2011 『북한의 역사 1 -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243~246쪽)

들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통찰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를 통해 선즈화는 중조관계의 변화를 “전통적인 종번(宗藩)관계가 현대라는 조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평등한 국가관계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중조관계가 ‘혈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립적, 모순적인 성격이었다고 결론 지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논쟁적 지점에도 불구하고 선즈화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중국이 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지, 그 역학관계와 신뢰관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통해 중조관계와 이 시기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자극받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